

도내 사회서비스 품질 '전국 최상위'

전북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평가 분석결과 상위등급 비율 64.2% 전국 평균 크게 상회

전북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평가 분석결과, 도내 사회서비스 품질이 전국 최상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사업을 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전담간호지원사업으로 구분해 3년 주기로 시행된다.

또, 서비스 제공기관 중 시도별 매출액 상위 40~45%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 제공인력 관리, 서비스 제공

및 성과 부문을 평가하고 있다.

도는 최근 3기(2019~2021) 평가결과, 평가기관 중 상위등급(A, B) 비율이 64.2%(68개소)로, 전국 평균치인 40.8%를 크게 상회했으며, 이는 전국 최상위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는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운영기관(제)전북도사회서비스원)을 운영, 제공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민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도민 및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함께하는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제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와 정보공시제를 운영, 제공기관이 안전하고도 투명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권역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전담제를 신규로 운영할 계획으로, 권역별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인력을 배정해 사회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 현장의

어로 상황을 청취해 사회서비스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높은 품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작년 12월에 개원한 전북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사회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형 비대면 문화예술 정책 필요

전북연구원, 언택트·마이크로 컨택트 문화예술 정책 제안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이 정책브리프 '전북도 비대면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총권5호)'을 발간하며, 전북도의 예술적 토대 위에 지역성이 반영된 전북형 비대면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제안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분야 코로나19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대면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 행사, 체험 프로그램의 취소에 따라, 지역 예술가들의 실질적 소득 감소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 조치에 따라 단체연습, 연습공간에 차질이 생기면서 창작활동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측면에서도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개막편수가 56.4%, 상연횟수 51.2%가 감소했으며, 코로나가 확산된 2020년에는 클래식, 복합공연, 뮤지컬 모두 개막편수가 줄어들면서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격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동영 연구위원은 '창작 기반, 순환, 향유' 4대 목표를 바탕으로 ▲온라인 활동 영역 확대, ▲온라인 콘텐츠 제작공간 및 인력 지원, ▲상향방향 정보 플랫폼 구축, ▲세대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김동영 박사는 "융복합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예술과 기술 융합이 가능하다"며 "예술가와 기술자 양측을 매개해 줄 수 있는 기획자 양성,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우수한 예술 작품 지원과 함께 기술융합 창작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을 제안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대면접촉을 통해 감성을 공유하는 예술 문화의 고유성 특징이 제한되며, 이에 따라 급변하는 문화예술 생태계 안에서 문화예술 유통 구조의 확대가 필요하다"를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문화예술 유통 플랫폼 구축 및 민간 플랫폼 활용 지원'을 중요성"을 제안하며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인의 경제력 확보와 안정적인 창작 기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김동영 박사는 "농촌 지역과 고령인구가 많은 전북도에서 지나친 디지털 접근은 디지털 불균형에 발생할 수 있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유롭게 온라인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청년 디지털 활용 도우미, 문화예술 교육 향유 카드 개발·제작과 배송 소규모 마을 단위의 마이크로 공연과 창작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투자전시관' 체험형 공간으로 새 단장

사전예약제로 운영... 가상현실·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진행

미래 명품도시 새만금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새만금 투자전시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종모)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과 투자자들이 새만금에 직접 가지 않고도 새만금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투자전시관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서울역 인근에서 운영 중인 투자전시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일반인들의 관람을 확대해 계획된다.

투자전시관은 "그린리필과 신산업의 중심지"라는 새만금의 비전을 주제로 핵심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홍보 영상과 사업 지역의 개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3차원 입체 지도를 구현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시작과 발전



새만금개발청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과 투자자들이 새만금에 직접 가지 않고도 새만금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투자전시관을 새롭게 정비했다.

과정에 대한 쉽고 재밌는 해설과 함께, 광활한 공간에 들어설 다양한 산업·관광·문화 시설 건축물 등을 연출한 조감도 등을 배치했다. 특히, 새만금에 건설되는 첫 도시

이자 친환경 에너지도시로 건설될 '스마트 수변도시'를 가상현실(VR)에서 체험을 직접 운전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움과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다.

/유호상 기자

"돼지카드 발행규모 1000억원 확대 경제 활성화"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1인당 연간 총진금액 180만원으로 상향... 효과 더 높아질 것"

전주시장에 출마한 조지훈 예비후보가 전주시장상품권(돼지카드) 발행 규모를 현재 규모보다 1,000억원 확대해 전주경제를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돼지카드 규모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소비를 촉진해 선순환 구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24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현재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주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돼지카드의 연간 발행 규모를 현재보다 1,000억 원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돼지카드 연간 발행규모는 2천 400억 원으로, 월 200억 원 규모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 월 30만 원 한도로 판매된다. 구매액의 10%를 캐시백 형태로 되돌려 줘 시민들

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첫 발행해 가입자는 현재 약 17만9,000명으로 집계, 매월 판매가 개시되는 1일 순식간에 완판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발행 규모를 늘려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돼지카드는 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인근 지역의 경우 1년 9개월 동안 500여억 원을 투입해 2,1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조지훈 예비후보는 현재 발행되는 연간 규모를 1,000억 원, 월 규모는 80억 원 정도 더 늘리고, 1인당 총

진할 수 있는 금액도 연간 180만 원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1인당 총진액이 기존 4만에서 180만으로 늘어난다는 셈이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돼지카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공감한다. 이는 단순히 10%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것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시민의식의 증대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역경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욱 고민해 완전히 새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한 해법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대한방직 부지 연계 유스호스텔 건립"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연계한 유스호스텔 건립으로 메타버스 1억 명, 연 2천만 명의 체류형 명품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유 예비후보는 24일 기자회견담화를 통해 "코로나 발생 전에 전주 방문객이 한 해 1천만 명에 달했던 적이 있다"라며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연계해 원산도서관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 서화동 예술마을을 일대를 묶어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체류형 관광도시 전제조건으로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제시했다. 그는 "발거리와 먹거리, 쇼핑할 것이 충분하다면 사람이 몰리고 돈이 쫓아온다"라고 말한 뒤 "타워와 복합쇼핑몰, 호텔 등의 상업시설을 통해 사람을 모으고 소상공인들의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옥마을과 가까운 원산도서관 자리에 유스호스텔을 건립,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산도서관 일대는 한옥마을과 가깝고 완산꽃동산, 서화동 예술마을 등 유스호스텔 입지를 잘 갖추고 있다"면서 "도서관을 제외한 일부 부지에 유스호스텔을 건립,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전, 풍남문에 이어 남천교, 서화동 예술촌 일대까지 야간경관을 조성해 야경이 아름다운 마을로 바꾸고 한류문화 중심의 메타버스 여행 플랫폼으로 디지털 관광 1억명 시대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김윤상 기자

소·염소 사육농가 구제역 일제접종

전북도, 4월 30일까지 추진

전북도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소·염소 549천 마리를 대상으로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시 소 50마리 미만 농가와 염소 800마리 미만농가는 전문가인 수의사를 동원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소 50두 이상 농가와 염소 800마리 이상 농가는 농장주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사육규모에 따라 소 50마리 미만, 돼지 1,000마리 미만, 염소 모든 농가는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소 50마리 이상과 돼지 1,000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50% 지원한다.

또한 일제접종 완료후 4주가 지나면 5월이 되면, 구제역 예방접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함께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확인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미흡한 농가는 파테로 부과와 재접종 4주후 재검사 등 특별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도, 비대면 학습지 '기억썩꾸' 확대 운영

전북도가 치매 어르신 돌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직접 개발한 자기주도형 비대면 학습지 형태의 기억썩꾸를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도는 오는 4월부터 도내 14개 시·군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병원의 치매고위험군 및 치매환자 1,100명을 대상으로 '기억썩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어르신 치매예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짐에 따라, 광역치매센터 및 관계 전문가와 함께, 비대면 학습지 형태의 '기억썩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해에는 남원, 정읍, 김제, 장수, 임실 등 5개 시·군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주 1~2회, 315명을 대상으로 2520회 '기억썩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또한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97.7%가 프로그램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참여자들에게 인지기능과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유호상 기자

임정엽 전 완주군수 "전주형 사회서비스원 설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24일 사회복지분야 정책발표를 통해 "전주형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주기 돌봄을 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형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다. 종사자 직고용 등 공적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유아·어르신 돌봄,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등 전주시민의 다양

한 돌봄 수요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임 전 군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간사회서비스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은퇴 후에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전주형 사회서비스원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형 마이크로크레딧 설립"

전주시장 예비후보인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24일 "대출시장의 구조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금리,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금리"라며 "유전적, 무전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전주형 마이크로크레딧 설립 또는 금융기관과 협력해 어려움을 처해 있는 청년,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시민 등 제도권 금융이 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긴급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제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금융 취약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 신용 대출 사업이다. /김윤상 기자

"삼천·전주천 산책로 화장실 신설"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삼천과 전주천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화장실을 신설하고 산책로와 자전거길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후보는 24일 전주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편의시설인 화장실을 짓고 산책로와 자전거길을 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이날 오전 덕진노인복지관 천변 나들이 행사장 등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어르신들은 화장실이 없어 긴 시간 걸다 보면 너무 불편하며 화장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삼천과 전주천에는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 후보는 "생활 속 건강 한 산책문화 확산은 물론 자전거도시 전주의 이미지에 걸맞게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며 편의시설인 화장실 신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